

## 신양파크, 생태호텔 추진 백지화 ‘시민 휴식 공원’으로 조성 되나



광주시는 2020년 무등산 내 신양파크호텔 폐업 자리에 호화 주택단지 조성하려 하자,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해 369억원을 들여 부지 및 건축물을 매입했다. 시는 현재 신양파크호텔 건물철거를 전제로 시민공원 조성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시 민·관·정위원회, 노후 건물 철거에는 대체적으로 공감 시민 세금 369억 투입...“다양한 의견 수렴 최적 활용방안 확정”

1000억원대 생태호텔 추진 등 각종 논란을 빚어 온 옛 신양파크호텔 활용 계획이 돌고 돌아 사실상 ‘시민 휴식공원’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이 부지매입은 존중하되 재정부담 최소화, 시민 열린공간 등 이른바 3대 원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에선 시민 세금을 무려 369억원이나 들여 매입한 부지를 단순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적절하느냐는 의견 등도 나온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첫 ‘구 신양파크호텔 공유회 사업 민·관·정위원회(15차)’를 열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은 리모델링 등을 통한 생태호텔 건립 계획(본보 2022년 4월 13일자 1면)철회 입장에 대해 대부분 동의했으며, 광주시 등이 내놓은 신양파크호텔 건물 철거계획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가 엿보였다. 이날 참석한 A위원은 “40년 이상 된 신양파크호

텔 건물을 리모델링한다고 해도 얼마나 견딜 수 있겠느냐”며 “건물 철거를 전제로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양파크호텔 건물 철거를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B위원은 “그동안 논의해온 신양파크호텔 활용 계획을 (하루 아침에) 뒤집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 “광주시 주무부서에서 호텔 철거 또는 존치 필요성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결정할 뒤, 다음 회의 때 (광주시의) 최종 의견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시는 이날 참석 위원들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사실상 신양파크호텔을 철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시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공원 조성 등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지역사회에서 신양파크호텔 부지 개발에 대한 기대가 크고, 단순한 시민공원 조성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공존한다는 점은 광주시에선 부담이다.

실제 지역 내에선 시민공원으로 꾸미자는 의견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관광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광주만의 상징성을 담은 랜드마크로 ‘시티 타워’ 건립, 케이볼카 설치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C위원은 “시장이 바뀌었다고, 1년 6개월 동안 논의된 내용을 백지화하고 400억원 가까운 시민세금을 들인 공간을 단순한 시민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열악한 광주시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차라리 민간업체에서 법적기준에 맞게 활용하도록 놔두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으며, 민관정 위원회 등 지어 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활용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2020년 10월 무등산 내 신양파크호텔(부지면적 4만 993㎡·건축물 1만 5682㎡)이 폐업한 자리에 호화 주택단지가 들어서려 하자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해 369억원을 들여 부지 및 건축물을 매입했다.

이후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한 민·관·정 협의회는 신양파크호텔 공유회 3대 원칙으로 ▲시민 중심의 무등산 공유화 거점조성 ▲무등산권 생태보전과 기후위기 대응 구심점 ▲유네스코에 등재된 무등산 가치의 세계화 등을 정하고, 시민위원을 갖춘 생태시민호텔 조성 등의 의견을 내놨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겨울 I’  
1912년  
18 x 29cm  
잉크, 수채, 과슈  
조르주 루오 재단  
소장

### 구부정한 걸음걸이에 담긴 인생의 무게

#### 조르주 루오 지상展

전남도립미술관 2023년 1월까지 전시

#### ‘겨울 I’

1912년에 그려진 ‘겨울 I’에서는 거리 자체가 행하고 어딘지 모를 쓸쓸함이 느껴진다. ‘겨울’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앙상한 나무들과 함께 황량한 거리 분위기는 어둡고 암울하다.

대개 어른과 어린이가 짝을 지어서 어른은 고개를 숙이고 구부정하게 걷고 있고, 어린이는 순진하게 어버이 곁에 붙어 있다. 얼굴과 표정이 잘 보이지 않으나 인물들의 걷는 모습만 봐도 보는 이로 하여금 인생의 무게와 고단함을 느끼게 한다.

루오의 초창기 풍경화에서는 대체로 자연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서 그린 것이 아닌, 풍경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 내면의 감정을 담았다.

<장미라·전남도립미술관 학예사>

## 민주당, 尹 국회 시정연설 불참

### 검찰 전방위 수사에 대한 항의 표시 ... 헌정사상 처음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등에 대한 항의 표시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관련기사 3.4면>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면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해 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것은 지난 5월 16일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 시정연설에 이어 두 번째다. 본예산 기준으로는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이다. 경제와 안보 모두 대내외 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반면 이날 시정연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일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겨

냥한 검찰 수사 등에 반발해 ‘시정연설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 마련된 의석은 절반 이상이 비어 있었다.

6석의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의석에 ‘부자감세 철회! 민생예산 확충’ ‘이xx 사과하라!’ 피켓을 좌석에 붙여놓고 본회의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두고 “웬만큼 해리”, “예의를 지켜라”, “대통령이 오는데 팻말이 뭐냐” 등으로 지적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전 세계적 기후 위기와 불평등, 국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안보위기 등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기대나 목표를 갖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무성의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약자 복지’ 기조와 관련해서도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 지역화폐 등 민생예산을 10조 원 가까이 삭감하고 겨우 몇 편 편성하는 것을 약자 복지라고 하는 것을 보며 비정하다 느낀다”고 평가절하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개인정보 유출에 뺨 맞은 ‘비대면 대출’ ▶6면

FIFA “김민재는 바위같은 수비수” 찬사 ▶18면

건축을 바꿔라 - 삶의 집합체 도시주거지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증명한다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EQS

This is for you.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수완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 하세요!



MERCEDES-EQ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원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성취대로 1041 (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4-5001 & 광주 민중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 (도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용량  
- EQS 350 4MATIC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4회 도상: 4.2, 고속도로: 3.9 | 1회 충전거리(km): 440, 공차중량(kg): 2405, 배터리 용량(kWh): 90.56  
- EQS 450+ 4MATIC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3.8(도상: 3.8, 고속도로: 3.7) | 1회 충전거리(km): 478, 공차중량(kg): 2590, 배터리 용량(kWh): 107.8  
- EQS 450+ AMG Line 4MATIC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3.8(도상: 3.8, 고속도로: 3.7) | 1회 충전거리(km): 478, 공차중량(kg): 2590, 배터리 용량(kWh): 107.8  
\* 본 차량의 표준모드에 의한 충전거리로 측정. 충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공차 중량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실제 충전 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차량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